새벽종

2026 01+02
vol.24
Magazine

시작

2026년 새롭게 도약하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
2026 01+02 vol.24

새마을운동중앙회

RECYCLED PAPER
PRINTED WITH SOY INK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9 771279 934002 01
ISSUE NO.24
ISSN 2799-9343

더 많은 〈새벽종〉을
만나보세요

새마을정신과
마음으로, **시작**

한 해의 문을 연 지금,
우리는 '시작'이라는 이름 앞에 섰습니다.

더 나은 마을, 더 따뜻한 이웃, 그리고 더 밝은 내일을 향해
새마을 가족들은 오늘도 마음을 모읍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떨림,
서로를 향한 다짐, 그 모든 시작 위에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함께합니다.

새로운 1년,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youtube.com/@새마을운동중앙회 instagram.com/letssaemaul
facebook.com/letssaemaul blog.naver.com/letssaemaul pf.kakao.com/_zNxkxnT



CONTENTS

2026 01+02
Vol.24







새벽을 열다

06 **새마을-ing**
붉은 말의 기세로 여는 새마을의 새 길

14 **지구촌새마을 속으로**
① 시범마을 사업 3년차 국가 타지키스탄
② 혁신적 농촌공동체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우려

18 **초록빛 동화**
당신의 첫새벽을 마중 나갑니다

20 **빛나는 사람들**
새마을 가족에게 전하는 감사 인사



Cover Story
멈추지 않고 달리는 말처럼 새마을운동은 2026년에도 이웃을 살피고, 자연과 공존하고, 세대와 지역을 이어갑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된 변화는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밝힐 것입니다. 2026년 새마을운동은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한 걸음 더 희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을 일구다

22 **우리동네 새마을 ❶**
서울 성동구 송정동새마을작은도서관

26 **우리동네 새마을 ❷**
경남 밀양시 숲이 있는 숲마 어울림 공동체

30 **청년, 새마을하다**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새마을동아리 'Y-SMU'

34 **새마을을 만나다**
손글씨로 읽는 새마을정신

내일을 꿈꾸다

36 **그 노래, 그 길**
바다와 삶이 만나는 자리에서 잠시 멈춤

40 **소통의 기술**
우리는 왜 칭찬을 망설일까

42 **생활 백서**
새해 목표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44 **새마을 브리핑**

58 **새마을 라운지**

발행일 2026년 01월 25일 | **발행처** 새마을운동중앙회 | **발행인** 김광림 | **기획**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 T. 031-620-2372, 2381 / F. 031-620-2379
편집·디자인 디앤씨컴퍼니 | **광고** T. 031-620-2381, magazine@saemaul.or.kr | **구독·주소변경** 해당 시군구새마을(지)회

본지에 게재된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붉은 말의 기세로 여는 새마을의 새 길



친애하는 새마을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말(馬)의 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 평안,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부터 말(馬)은 거친 대지를 힘차게 내달으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올해 우리 새마을운동 역시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정체된 모든 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롭게 재도약하는 '희망과 도전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과 함께 새마을운동 55주년이라는 뜻깊은 이정표 위에서 미래 100년을 향한 웅대한 서막을 열었습니다. 숱한 고난 속에서도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불멸의 시대정신을 지켜온 지도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새마을운동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더욱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과 통합의 길을 여는 실천적 가치로, 국민의 삶 속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6년, 새마을운동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녹색 새마을운동'으로 기후 위기 극복의 최전선에 서야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주체로서 전국의 모든 마을이 환경 전환의 거점이 되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둘째, AI 시대의 고속도로 위에서 '미래형 새마을운동'으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국가가 열어가는 AI 성장의 물결에 발맞추어,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 사고를 결합한 창의적인 미래형 지도자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모든 활동에 디지털 혁신을 입혀 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한 변화를 주도해 나갑시다!

셋째, 우리가 일군 'K-민주주의'를 전 세계 50개 새마을 협력국과 공유하겠습니다. 'K-민주주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의 독창적인 민주주의 모델입니다. 이를 새마을운동의 실용주의적 가치와 결합하여 지구촌 공동 번영을 이끄는 글로벌 표준이자,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 우뚝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확장의 주역은 바로 우리 청년들입니다. 1만여 명의 새마을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세대 간 통합을 이끌고, K-민주주의를 세계에 알리는 통합의 구심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오랜 숙원이었던 '새마을연수원 현대화'라는 뜻깊은 성과도 보고드립니다. 국가가 국비 예산으로 총사업비 120억 원을 승인했으며, 올해 설계비와 착공비로 30.5억을 책정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리조트급 연수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전국 새마을 가족 모두가 최고의 자긍심을 느끼며 역량을 갈고닦을 수 있는 든든한 요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마을 가족 여러분!

길이 있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곳이 곧 길이 됩니다. 탄소중립과 AI 혁신, K-민주주의의 세계화, 그리고 연수원 현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그려온 비전을 향해 붉은 말처럼 거침없이 달려갑시다!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모두가 행복한 상생 공존의 시대를 우리 손으로 열어갑시다!

새해에는 붉은 말의 기운처럼 힘차고 담대한 기회가 여러분의 삶 곳곳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새마을 가족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고, 서로를 보듬는 따듯한 온기가 온 나라에 널리 퍼져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강 망 림



마부정제

馬不停蹄



멈춤 없는 한 해,
새마을은 지금도 전진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회장 **양윤호**

존경하는 전국의 새마을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붉은 말은 뜨겁고 역동적인 기운을 상징합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은 이 기운을 이어받아 '馬不停蹄(마부정제)', 즉 '말이 달리듯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는 각오로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선배 새마을지도자들께서 흘린 땀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지역발전의 기틀을 세운 그 뜻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가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2026년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는 회원 배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함께하는 회원을 늘리고, 활동의 폭을 넓혀 더 큰 연대와 실천의 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지도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곧 새마을운동의 심장이며, 여러분의 헌신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기후 위기, 인구 감소, 공동체 해체 등 시대의 문제 앞에서 새마을운동은 다시금 국민 통합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을 향해 손 내밀어 함께 웃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새마을 가족 여러분, 2026년은 멈춤이 아닌 도약의 해입니다. 선배의 뜻을 이어받아 후배에게 희망을 전하고, 회원 배가를 통해 더 큰 새마을, 더 강한 새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처럼 우리의 열정과 실천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부작침

磨斧作針

생명의 삶터 살리는
GHC(녹색, 건강, 문화)운동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회장 **김정임**



사랑하는 새마을 가족 여러분!

희망찬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붉은 말의 기운이 가득한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 새마을 가족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좋은 일들로 거침없이 전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기후 위기라는 전 인류적 과제 앞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앞장서 왔던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든든히 기본을 지켜온 새마을부녀회가 있었습니다.

병오년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과 녹색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로 자리 잡는 해입니다. 이에 우리 새마을부녀회는 녹색새마을운동의 주체로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생활 속 에너지를 아끼는 작은 습관, 장바구니 하나를 바꾸는 일, 마을 환경을 가꾸는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바로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강력한 실천임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새마을부녀회는 가정에서 마을로, 지역에서 온 대한민국으로 나아가 녹색 실천으로 변화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고민하며,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지속 가능한 녹색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갑시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노력의 대가가 병오년을 녹색 희망과 실천의 해로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새마을운동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가 고난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보다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새마을 가족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존공영

共存共榮



직장새마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전문수**

존경하는 직장·공장 새마을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점에서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장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큰 성취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망(多事多忙)했습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우리 직장 회원 여러분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직장·공장 새마을운동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직장·공장 새마을운동의 핵심 가치는 '공존공영(共存共榮)', 즉 기업과 지역, 조직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는 데 있습니다. 나만의 성과가 아닌, 함께 잘되는 길을 모색하고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오늘날 직장 새마을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우리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작년에 첫걸음을 내디딘 '아름다운 동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회원 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손잡아 나눔과 봉사를 확대하며, 일터에서부터 신뢰와 배려가 살아 숨 쉬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더 건강한 직장, 더 따뜻한 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직장·공장 새마을 가족 여러분!

2026년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공존과 공영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뛰며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붉은 말'의 역동적이고 힘찬 기운으로 모든 계획이 결실을 맺는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고지영

根固枝榮

책으로 잇는 희망, **독서의 뿌리를 내리다**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 **김종철**



전국의 새마을문고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을사년을 마무리하고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마을문고는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새마을문고도서대장정 운동을 전개했고, 전국 각지의 새마을문고에서 책을 모아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자리한 독도와 울릉도에 전달했습니다. 또 협약기관인 일본 토우아대학교를 방문해 도서대장정 세계화의 첫발을 내딛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일본 토우아대학교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재)독도재단, 대구 달서구, 대구사이버대학교와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대전 영시축제에서는 전국 새마을문고 재능 경연대회를 개최해 축제를 빛내고 새마을정신을 알렸습니다.

여러 활동을 통해 새마을문고운동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서 새마을문고운동에 열정을 다 해주신 문고지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새마을문고 가족 여러분!

첨단기술에 의해 삶은 편리해지고 있지만 마음의 등불은 여전히 책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고지영, 즉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말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독서 습관이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독서 문화 운동을 적극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붉은 말의 기운으로 활기찬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丙午年 멈춤 없는 한 해, 말띠 새마을 가족이 전하는 새해 다짐과 인사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시대를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켜 온 새마을운동. 2026년 그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말띠 새마을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전하는 다짐과 희망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강경수

경북 포항시 흥해읍협의회장

1988년 새마을지도자로 위촉된 이후 지금까지 새마을운동과 함께해 왔습니다.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 덕에 몸소 실천하는 새마을운동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발로 뛰는 열정으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며 새마을의 새로운 시작과 활력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박종일

경기 수원시 정자3동협의회 지도자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말의 기상처럼 힘차고 성실하게, 새마을정신의 근간인 근면·자조·협동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며 지역과 이웃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김민경

문고 제주 제주시지부 지도자

지난 한 해 전국의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이 만들어 낸 울림은 제게 큰 감동과 새로운 에너지를 안겨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26년에도 말처럼 힘차게 성장하는 지도자로서 지역과 사람을 잇는 새마을정신을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저도 제주에서 새마을문고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금석

직장·공장 전남 목포시협의회 지도자

2026 병오년에는 앞서기보다 뒤처진 이웃과 보폭을 맞추는 새마을운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과 하루를 나누고, 어르신 댁의 방충망과 도배·장판을 고치며 봉사는 어느새 제 삶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현장에서 먼저 움직이는 새마을 가족이 되겠습니다. 전국 새마을 가족의 일상에 힘찬 도약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을순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부녀회장

전국의 새마을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각 지역에서 나눔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공동체를 따뜻하고 희망 가득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근면·자조·협동'의 가치를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최은희

충북 제천시 백운면부녀회장

지금까지 새마을과 함께해 온 시간은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나눔을 실천하며 제 삶 또한 풍요롭게 만들어준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2026년 적마의 해, 힘차게 달리는 붉은 말처럼 우리 새마을 가족 모두가 역동적으로 도약하고, 멈추지 않는 나눔의 발걸음으로 더불어 행복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양희동

서울 강서구 청년새마을연대회장

병오년(丙午年) 새해 인사를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새마을운동과 함께한 지 어느덧 3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많은 격려와 응원 덕분에 한 걸음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어려움은 도약의 기회로 삼아 뜻깊은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며, 붉은 말의 기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홍진우

대전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장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치지 않고 달리는 말처럼, 올해 우리 새마을 가족 모두가 힘찬 기운을 받아 원하시는 모든 일을 시원하게 이뤄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발걸음에 밝은 활력을 보태며 늘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지난해보다 더 많이 웃고 함께 번영하는 행복한 한 해 보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변화의 시작이 된 새마을운동
타지키스탄 새마을 초청연수

시범마을 사업 3년차 국가 타지키스탄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이 밝은 웃음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졌다. 근면·자조·협동을 근간으로 하는 새마을정신을 배우기 위해 타지키스탄의 공무원과 마을지도자들이 방문했기 때문이다. 총 9박 10일의 알찬 일정을 통해 이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마을을 변화시키겠다는 일념으로 한국까지 머나먼 연수를 떠나 온 그들의 마음을 살펴본다.

글 김민진 **사진** 전경민

이브로힘조다 압둘라술 이브로힘존
[샤리나브군 군수]

Q. 타지키스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또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는 타지키스탄 샤리나브 지방 정부의 공무원입니다. 지역 개발위원회 부의장도 역임하고 있죠. 샤리나브는 약 1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17개 마을로 이뤄졌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국토의 9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평균 고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험준한 산맥과 깊은 계곡이 많아 개발이 어려운 지역도 많죠. 한국 역시 국토의 상당 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점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경제강국으로 부흥시킨 새마을운동이 분명 타지키스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지방정부에서도 새마을운동에 큰 관심을 두고 있죠.

Q. 현재 지역에서 진행 중인 새마을운동이 있나요?

2024년에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우리 지역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총 4개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변압기·전봇대 교체, 도로 보수, 배수로 수리 등을 비롯한 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덕분에 마을 분위기와 삶의 질이 상당히 좋아졌죠.

Q. 새마을운동으로 어떤 변화가 이뤄지고 있나요?

사람들이 마을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니 마을 사람들이 무척 만족하고 있어요. 가장 큰 성과는 미래를 향한 동력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주민 모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마을 전체에 활기가 가득 찼고 다들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모르는 마을들도 우리의 변화를 보고 자체적으로 작은 사업을 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Q. 이번 초청연수 프로그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든 강의와 견학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도움이 된 건 산림녹화사업이죠. 전쟁으로 황폐화된 한국의 국토를 되살린 것은 새마을운동에서 진행한 다양한 산림녹화사업입니다. 타지키스탄도 1990년대에 내전을 겪어 산림녹화 사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이번 초청연수가 한국의 산림녹화 노하우와 경험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죠.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하고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실무적인 지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어떤 새마을운동 사업이 진행될까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선은 마을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황폐화된 환경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여러 현안들이 남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의지와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들의 협조와 열의가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초청연수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폭적인 지원과 교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함께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한국과 새마을운동을 통해 우정을 쌓고 좋은 프로그램, 사업과 아이디어를 얻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의 의지입니다. 한국은 불과 50여 년 만에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타지키스탄에는 신이 선물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조금 더 살기 좋은 마을, 행복한 마을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타지키스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알아보기



굴르레자 (Gulreza)
- 마을식수사업(40톤 용량의 물탱크 설치)
- 하수구 정비(마을 배수로 보수)
- 전기사업(변압기 추가설치)



나브바호르 (Navbahor)
- 전신주 120개 교체(1,500m)
- 전봇대에 전등 설치(70여 개)
- 마을 안 식수(140m 깊이 우물 시추
- 전기 공급 사업(변압기 400wh, 2대 설치)



하요트 나브 (Hayoti Nav)
- 마을 안길 포장
  (길이 1.2km, 폭 5m, 아스팔트 포장)
- 토사 유출 방지 구조물 설치(길이 20.6m)



파이즈바흐쉬 (Faizbakhsh)
- 차수 방지형 구조물 설치
  (길이 45m, 폭 10m, 높이 7m)
- 전기 공급 사업
  (변압기 2개, 전신주 50개, 태양광 가로등 80개 설치)

혁신적 농촌공동체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국제개발협력의 현장에서 '새마을운동 ODA사업'은 오랫동안 한국형 지역개발 모델의 대표 사례로 논의돼 왔다. 이제 그 축적된 경험은 '혁신적 농촌공동체개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확대되며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았다. 통합과 확장이라는 이름 아래 새마을운동 ODA는 어떤 방향을 선택하게 될까. 그 변화의 의미를 짚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지점을 알아보자.

글 조영국 협성대학교 교수

혁신적 농촌공동체개발 프로그램의 출범: 새로운 전기를 맞은 새마을운동ODA사업

새마을운동ODA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그동안 기관별로 추진되었던 KOICA의 농촌개발프로그램과 새마을운동중앙회(행정안전부), 경상북도새마을재단의 새마을운동ODA사업이 2026년부터 혁신적 농촌공동체개발 프로그램으로 통합된 것이다. 여기에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의 연계까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분절적 시행에 따른 낮은 개발효과성 문제를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혁신적 농촌공동체개발 프로그램은 전국적 혹은 개별 주전체와 같은 광역적 지역을 대상으로 수십 개 혹은 그 이상의 시범마을을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종전의 농촌공동체개발사업 혹은 새마을운동ODA사업에 비해 사업 기간과 사업비 규모도 커졌다. 또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경상북도새마을재단은 주민 및 공무원 연수, 석사 학위 연수 등의 역량개발을,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을 그리고 KOICA는 구체적 개발프로젝트의 시행을 각각 담당하는 사업구성요소별 역할분담 체제를 채택했다.

새마을운동ODA 관점에서 보면, 전면적으로 확대된(scale-up) 새마을운동ODA 프로그램의 시행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국가당 5개 내외의 적은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자생마을 확산과 새마을운동의 국가 정책화를 목표로 했다. 사업 내용과 사업 비전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다. 혁신적 농촌공동체개발 프로그램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또 KOICA 현지 사무소와 상당한 프로젝트관리 조직(PMC와 PMO)까지 활용할 수 있어 현재보다 훨씬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는 점도 환영할 만하다.

혁신적 농촌공동체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오랫동안 KOICA의 농촌개발프로그램과 중앙회의 시범마을조성 사업을 관찰해온 필자가 보기에 혁신적 농촌공동체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자칫 새마을운동ODA사업이 가진 고유의 장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관련 정책보고서나 실제 사업을 위한 예비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혁신적 농촌공동체개발 프로그램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중시하고 다수의 외부 전문가와 공적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KOICA 특유의 사업방식을 여전히 중시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중앙회의 새마을운동ODA 사업의 고유한 특징으로 정해진 사업비를 마을에 지급하고, 사업의 발굴 및 선정, 사업추진, 성과도출 전체를 해당 마을에 거의 전적으로 맡긴다는 점을 꼽는다. 또 미리 복잡하고 정밀한 세부 성과목표(output)를 정해 놓고 그 달성에 매몰되지 않는 목표 개방적 접근을 취할 뿐만 아니라, 가시적 성과도출보다 'learning by doing'을 통한 역량 강화를 더 중시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른바 진정한 참여적 개발 방식을 추구하는 사업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진정한 참여적 개발 모델은 수혜자가 사업의 전 과정을 주관하고 외부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변혁적(transformative) 주민참여를 추구하는 개발 모델이다. 변혁적 주민 참여가 보장될 때 비로소 공동체주도(community-driven) 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앙회의 새마을운동ODA사업 방식을 두고 다수의 전문가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지만, 필자는 오히려 진정한 참여적 개발, 공동체주도 개발모델을 추구하는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마을에 시멘트 수백 포를 배포할 뿐 정부는 아무런 목표나 지침을 내세우지 않았던 최초 새마을운동 원칙도 이 사업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람직한 혁신적 농촌공동체개발 프로그램의 추진 방식

혁신적 농촌공동체개발 프로그램이 위에서 언급한 새마을운동 ODA사업 특유의 장점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주민교육과 마을 단위 개발활동을 한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체개발은 결코 표준화할 수 없는 프로젝트이다. 현장의 추진 사정에 따라 주민 교육의 방향과 내용도 계속 바뀌어야 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교육 담당자와 수혜그룹 사이에 긴밀한 관계 나아가 정서적 유대감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고려하면 시범마을사업 경험이 많고 또 새마을원리가 체화된 인력을 다수 갖춘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민교육과 마을 단위 개발 활동 관리를 함께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대신 KOICA는 광역적 단위의 인프라 개선이나 가치사슬체계 구축 사업을 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열악한 도로, 불충분한 용수공급, 낙후된 농업기반 등 구조적 취약 요소가 있을 경우 마을 단위의 개발프로그램만으로 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혁신적 농촌공동체개발 프로그램은 마을 단위의 개발 활동에 앞서 먼저 이러한 구조적 제약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구성요소를 발굴하고 KOICA가 이를 전담하는 역할 분담 방식이 적절하다.

2026년 올해부터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혁신적 농촌공동체개발 프로그램이 시작되지만,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서 KOICA식의 농촌개발사업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새벽을 - 열다 초록빛 동화

우리마을 줍깅

한 걸음 한 걸음, 마을을 가꾸며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첫새벽을 마중 나갑니다

병오년 새해가 오기 전, 새마을은 조금 먼저 준비를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고, 말없이 손을 보탭니다. 새마을의 새해는 언제나 다른 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림 박경인

새해맞이 떡국 나눔

새해 첫 음식을 함께 먹으며,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따뜻한 한 해가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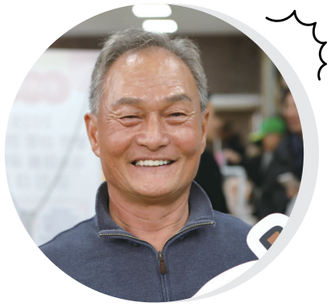
이불 한 채에 깃든 따스함

정성껏 준비한 이불 한 채,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어르신의 겨울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새마을의 이야기

새마을 가족에게 전하는 감사 인사

새마을 가족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솔한 목소리에는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크고 특별하지 않지만, 무엇보다 깊은 진심이 담긴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김상철

경남 밀양시 숲이 있는 숲마 어울림 공동체 대표

지난해 우리 지역의 잊혀진 옛 등산로를 복원했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기 일처럼 두 팔 걷고 힘써준 우리 새마을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이 더 발전하고, 희망이 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김미선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2리부녀회장

지난해 남양주시 새마을부녀회의 으뜸마을 공동체에서 활동하며 어르신들에게 사회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렸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유익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건강해야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변경숙

전북 익산시 함라면부녀회장

지난해 열심히 활동한 덕분에 우리 마을공동체가 우수 마을 공동체로 인정받아 뿌듯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가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함께했던 어린이들, 청년새마을연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함께 올해도 좋은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요!



김준수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새마을동아리 'Y-SMU' 회원

저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새마을동아리 활동을 통해 보람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하나에 성실히 임하며, 꾸준한 실천을 통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새마을동아리 'Y-SMU' 회원

새마을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봉사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을 통해 느끼고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현숙

문고 서울 성동구 마장동분회 지도자

더 많은 분이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특히 문고 회원들을 중심으로 환경에 관한 관심을 나누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모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김경희

문고 서울 성동구 마장동분회 지도자

올해도 새마을 가족이 의미 있는 봉사를 통해 이웃과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장동분회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누구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서로를 살피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마을 곳곳에 오래 이어지길 바랍니다.



책장을 넘어 **마을로 나아가는 도서관**

대통령기 제45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최우수'
서울 성동구 송정동새마을작은도서관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본 콘텐츠는 오디오북으로도 제공됩니다.

책 읽는 곳을 넘어 문화를 나누는 공간이 되기까지, 송정동새마을작은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 뒤에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숨기고 있다. 주민들이 문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작은도서관은 오늘도 책장을 넘어 한 발 더 마을 안으로 들어간다.

글 장희주 **사진** 전경민



연하장을 만드는 문고 지도자들

책을 빌리는 곳에서, 문화를 이끄는 곳으로

2025년의 한 해가 저물어가던 어느 날,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5층에 자리한 서울 성동구 송정동새마을작은도서관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작은 준비가 한창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연하장을 만들기 위한 카드지와 스티커, 풀과 펜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풍선아트를 제작하기 위한 색색의 풍선과 가위가 가지런히 준비돼 있었다.

문고 서울 성동구 송정동분회 회원들은 종이를 오리고 붙이며 받는 이를 향한 마음을 연하장에 차곡차곡 담아냈다. 풍선이 터질까 조심스레 손을 움직이면서도 풍선아트로 둥글게 빚어진 사과 모양을 바라보며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런 풍경은 문고 회원들이 직접 나서 새마을작은도서관을 꾸리고, 마을의 문화와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9년 설립된 송정동새마을작은도서관은 현재 4,297권의 장서를 갖추고,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 도서관이다. 그러나 이곳은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장소에 머무르지 않는다. 대형 문화시설이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적어도 '동네'에서만큼은 문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만나고 경험하는 마을의 생활 거점으로 자리 잡아왔다. 도서관이라는 틀에 머무르기보다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이유다.

이러한 방향 아래 장연희 문고 송정동분회 회장은 새마을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공간의 쓰임'과 '주민 참여'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을 모두 같은 무게의 가치로 두고 있다. 그래서 송정동새마을작은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북콘서트와 전시, 각종 문화 행사와 모임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마을책방과 함께하는 문화운동을 중심으로 북콘서트와 원화전시, 어린이 방학특강, 어린이 독서왕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책을 매개로 보고, 듣고, 만들고, 함께 참여하는 문화 경험을 넓혀가고 있다.

새마을이 앞장서 만든 문화의 자리

이러한 활동들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훌쩍 넘어선다. 송정동새마을작은도서관은 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문화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다.

문고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송정동새마을작은도서관에 모여 풍선아트를 만들고 이를 무료로 나누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4월에는 벚꽃축제에, 11월에는 송정단풍축제(단풍음악회)에 참여하며 마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다. 도서관 옆 중랑



새해 연하장 만들기



도서관 옆 뚝방길에 놓인 시판 관리



라인댄스 동아리 '송정동해피댄스'

천 뚝방길에는 문고 회원들이 직접 고른 시를 패널에 담아 걸어두고 디자인부터 관리와 보수까지 손수 챙긴다. 산책길을 따라 이어지는 짧은 문장들은 그렇게 주민들의 일상 속 풍경이 된다.

송정동새마을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가장 인기 있는 문화 프로그램은 라인댄스 동아리 '송정동해피댄스'다. 이 모임에는 외부 강사가 없다. 문고 회원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 서로를 따라 배우며 함께 몸을 움직인다. 온라인 영상을 참고해 동작을 익힌 뒤 이를 동아리 회원들과 나누며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혀간다. 누군가는 운동을 위해, 누군가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다. 중요한 건 춤을 얼마나 잘 추느냐가 아니라 함께 웃고 움직이며 보내는 시간 그 자체다. 정해진 커리큘럼이나 전문 강사는 없지만 그 대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이 차곡차곡 쌓여간다.

"동아리 인원은 20명 정도인데 평균 연령대가 65세가 넘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막내고요. 다들 어르신들이라 어려운 동작보다는 하나 익숙해지면 그다음 동작을 차근차근 붙여가며 반복해서 연습해요. 15분만 해도 땀이 날 정도로 운동량도 꽤 있고요.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만족도도 높아요. 무엇보다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마을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요. 지금은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대기 인원도 10명이 넘어요."

이처럼 송정동새마을작은도서관은 책으로 시작해 문화로 확장되고,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사람으로 이어지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무엇보다 이곳에서의 문화는 특별한 이벤트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은 독서 문화의 성과로도 이어졌다. 송정동새마을작은도서관은 최근 '대통령기 제45회 국민독서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새마을작은도서관의 강점은 결국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하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8년 넘게 이어온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시판이나 행복글판 관리부터 풍선아트 제작, 라인댄스 동아리 운영, 어린이 방학 특강까지 이어져 왔죠. 이런 활동들은 대부분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자립적으로 운영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새마을 정신'이라고 하는 근면, 자조, 협동 같은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걸 특별히 의식해서라기보다는 계속해 오다 보니 마을 안에 스며든 거죠. 그래서 이번 수상은 뭔가를 새로 잘해서라기보다 그동안 해오던 일들이 방향을 잘 잡고 있었다는 걸 확인받은 느낌이에요. 도서관 활동이 마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주민들과 함께해 온 시간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받은 것 같아서 더 뜻깊어요."

공간을 넘어,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도서관

꾸준한 활동을 통해 수상이라는 성과를 인정받았지만 장연희 회장은 새마을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도서관 안에만 머무르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곳의 시선은 여전히 책장을 넘어 마을을 향해 있다.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넘어, 마을 깊숙이 들어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새마을문고'가 되고자 하는 이유다.

"도서관 안에서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문화생활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가 앞에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나가고 싶어요. 마을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2026년을 향한 계획도 구체적이다. 우선 독서동아리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회원 모집부터 운영까지 과정을 꼼꼼히 정비해 독서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서관 옆 뚝방길에 설치된 시판 역시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해 교체·설치할 예정이다.

송정동새마을작은도서관의 가장 큰 힘은 무엇보다 '지속하는 힘'에 있다. 일을 겁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기꺼이 감내해 온 회원들 그리고 묵묵히 곁에서 힘을 보태온 사람들. 그 지속의 원동력에는 언제나 새마을이 함께해 왔다. 앞으로도 송정동새마을작은도서관은 지금처럼 마을과 함께 걸어갈 예정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들를 수 있는 곳. 새마을에서 피어나 마을로 스며든 이 작은 도서관이 앞으로도 동네 사랑방으로 남기를 바란다.

송정동새마을작은도서관



그림책 원화 전시회

일상 공간에 펼쳐진 그림책 한 권

지난해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5층 복도에서는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원화 전시회가 열렸다. 일상과 자연, 가족의 의미 등 회차마다 다른 주제의 그림책 원화가 전시해, 청사를 찾는 방문객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이끌었다. 아이들은 그림 속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어른들은 원화에 담긴 따뜻한 메시지를 깊이 생각했다.



새마을 청소

송정동 새마을 삼남매가 함께 만든 변화

지난해 봄부터 여름까지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인근에서는 성동구 문고 송정동분회와 송정동협의회, 부녀회가 함께 마을을 돌보고 가꾸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새마을청소를 진행했다. 골목, 보행로, 녹지에 쌓인 생활 쓰레기와 낙엽을 정리하는 등 송정동 새마을 삼남매(협의회, 부녀회, 문고)가 힘을 모아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었다.



새마을정신으로 잊힌 과거의 길을 잇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본 콘텐츠는 오디오북으로도 제공됩니다.

2025 좋은 이웃 만들기 우수마을 공동체 경진대회 '최우수'
경남 밀양시 숲이 있는 숲마 어울림 공동체

쓰레기와 잡목으로 한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던 옛길이 밀양시새마을회와 동명마을 주민들의 손을 거쳐 다시 이어졌다. 처음에는 쉽지 않아 보였던 이 선택은 길을 되살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마음과 마을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조금씩 바꿔 놓았다. 숲길을 따라 이어진 동명마을의 변화는 일상 속 실천이 '공동체'로 확장되며, 지속 가능한 마을로 나아가는 작은 시작이 되고 있다.

글 장희주 **사진** 손호남

잊혀진 길에서 되찾은 동명마을의 가능성

밀양시새마을회는 오랜 시간 동명마을 주민들과 생활 현장을 함께하며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마을을 가꾸고 보살펴 왔다. 국기게양운동처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부터 아동과 여성 지킴이 활동과 반찬 나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까지. 이웃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일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와 환경 실천 활동을 통해 생활 속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와 청소년 독서퀴즈 경진대회, 피서지문고 운영 등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지역 문화의 저변을 넓혀왔다. 이처럼 생활 가까이에서 이어진 실천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최근에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공동체 사업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됐다. 동명마을의 '숲이 있는 숲마 어울림 공동체'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주민 주도의 참여와 연대가 마을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상철 동명마을 공동체 대표는 마을이 지닌 '잠재력'을 다시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이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시작됐다고 설명한다.

"동명마을은 충분히 '지속 가능한 마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동명마을은 재약산 자락의 작은 산촌 마을로, 오랫동안 이 지역의 기억과 삶을 기록해 온 김춘복 작가가 함께해 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의 기록 속에는 마을의 시간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죠. 그 중심에는 '얼음골'이 있죠. 얼음골은 1970년 대한민국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으로, 겨울뿐 아니라 한여름에도 바위틈 사이로 얼음이 생성되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얼음골로 들어가는 길의 시작점이 바로 동명마을이었죠. 하지만 도로가 새로 나면서 예전 얼음골로 향하던 옛길은 중간에서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한때는 나물을 뜯고 숯을 굽고, 샘터에서 쉬어 가던 생활의 길이었지만 어느새 '잊힌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동명마을 주민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이 길을 그대로 두기에는 아쉬움이 컸다. 주민들은 마음을 모아 예전처럼 사람들이 오가던 등산로를 다시 정비해 보자고 뜻을 모았다. 그렇게 하나로 모인 마음이 공동체의 출발선이 됐다. 마침 그 무렵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후원하는 '2025년 마을공동체 사업·좋은 이웃 만들기' 공모가 진행됐고, 동명마을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재약산 등산로를 정비하는 모습

이후부터는 말 그대로 '사람의 손'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꽃모종을 심고 화단을 만들며, 물을 주고 돌보는 일상이 이어졌다. 사과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동명마을은 1년 내내 농번기가 계속되지만, 전지와 적과, 방제 작업 사이사이에도 주민들은 시간을 쪼개 현장으로 나왔다. 그렇게 마을의 손길이 하나둘 쌓이면서 숲마을의 풍경 역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마을의 '기억'과 '희망'이 함께 되살아나던 과정

처음부터 모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회의에 대한 피로감이나 사업에 대한 거리감도 분명히 존재했고, 참여 인원 역시 일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며 몇몇 주민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참여는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주민들은 환경 정비와 꽃길 조성, 등산로 정비 등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서기 시작했다.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다. 무거운 자재를 비롯해 표지판과 목재를 들고 오르내리는 일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게다가 톱날과 못처럼 챙겨야 할 장비도 많았고, 한 번에 모두 들고 올라갈 수 없어 중간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야 했다.

"작업이 이어지는 동안 보이지 않는 원망의 말들도 적지 않았죠. '이 더운 여름에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결과가 보장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라는 이야기도 들렸고요. 하지만 작업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길 곳곳에는 나무와 꽃도 심었다. 단순히 길을 정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머물고 바라볼 수 있는 풍경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조금씩 손을 보태며 이 길은 다시 '사람이 다니는 길'이 되었고, 마을의 기억과 희망도 함께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흘린 땀이었지만, 결국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시간이 증명했다. '2025 좋은 이웃 만들기 우수마을 공동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전국 단위 성과로 이어지자, 땀의 결과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고 주민들 역시 그 성취를 함께 기뻐하게 됐다.



좋은 이웃 만들기 우수마을 공동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을 기뻐하는 마을주민들

다시, 공동체의 힘으로 내일을 향해

마을의 기억과 희망이 함께 되살아난 동명마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인식'이었다. 누군가 해주길 기다리기보다 우리 손으로도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경험이 쌓이면서 주민들 사이에는 자신감과 기대감이 생겨났다. 김상철 회장은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이번 사업이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 재약산 등산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제초 작업도 해야 하고, 안내판 보수나 등산로 정비도 주기적으로 필요하죠. 사람이 계속 다녀야 길이 살아 있습니다. 발길이 끊기면 길도 다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길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때까지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일회성 정비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주민이 중심이 되는 관리 방식은 계속 이어질 계획이다. 정기적인 점검과 소규모 정비를 통해 등산로와 마을 길을 '살아 있는 공간'으로 유지하고, 마을 탐방이나 소규모 프로그램과 연계해 활용도 역시 높여갈 생각이다.

"이 길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마음을 모아 가꿔 온 생활의 공간입니다. 이 길을 찾는 분들이 잠시 걷고 지나가는 길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주민들의 노력과 염원을 한 번쯤 떠올려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길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와 변화를 품은 채 오래도록 살아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숲마 어울림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비로소 '마을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새롭게 상상하게 됐다. 길을 정비하는 작은 실천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공동체를 통해 더 넓은 가능성과 미래를 그려보게 된 것이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마을 공터를 활용한 운동 공간을 조성하고, 공동 수익 창출을 위한 작업장도 마련하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있다.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나 가공과 체험이 어우러진 6차 산업형 마을 모델 역시 그려보고 있다. 동명마을의 주민들이 모여 다시 이어진 이 길은 동명마을의 어제와 오늘을 잇고 그렇게 내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

밀양시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우리 손으로 전하는 따뜻한 마음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소 기부활동과 사랑나눔 실천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16개 읍·면·동 부녀회장과 협의회 임원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 400포기와 밑반찬을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뚝딱뚝딱,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다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간다. 지난해 9월에는 취약계층 가구 4곳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전반을 보수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웃고 즐기며 하나로!
새마을동아리가 모이면 미래가 된다

2025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 '대상'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새마을동아리 Y-SMU



2025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화성 라비돌 호텔&리조트에서 '2025 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가 열렸다. 전국 78개 대학에서 모인 400여 명의 회원들로 현장은 시작부터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이틀 동안 회원들은 활동사례 발표와 장기자랑,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웃고 소통하며 연대감을 쌓았다.
한 해 동안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대학새마을동아리는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통영) 새마을동아리 'Y-SMU'로 선정됐다. 앞으로 자랑스러운 새마을지도자로 성장할 Y-SMU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글 윤민지 사진 김병구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및 Y-SMU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환경공학과 4학년 김민영입니다. 2023년부터 Y-SMU에서 활동해 왔으며, 지난해 부회장을 거쳐 올해는 회장을 맡아 동아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Y-SMU는 2011년 통영시새마을회와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의 협력으로 출범했으며, 현재 회원 수는 94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줍깅 활동을 비롯해 어르신 인지향상 프로그램, 제빵·벽화·연탄 나눔 봉사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죠. 특히 2025년에는 통영국제음악재단(TIMF) 프린지 음악제 봉사에 참여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청년센터, 경상국립대학교 RISE사업단과 협력하며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뿌리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Q Y-SMU가 전국 78개 대학새마을동아리 중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한 결과를 인정받았는데요.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대학새마을동아리 활동은 친구의 권유로 가볍게 시작한 활동이었어요. 그런데 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우리 동아리가 전국 대상이라는 큰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활동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동아리 회원들과 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킨 임원진의 호흡이 잘 맞았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울러 언제나 저희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신 통영시새마을회 사무국장님과 지도과장님,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통영시새마을회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해양 쓰레기 줍깅



교내 벽화 재정비

Q 지난해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새마을운동을 이어왔나요?

'회원들이 즐기면서 웃을 수 있는 활동을 하자'는 것이 목표였어요. 봉사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지속되기 위해서는 즐거움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원진이 솔선수범하면 회원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것이라 믿고 실천해 왔습니다.

기존의 생명교실과 연탄 나눔 활동에 더해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 자원봉사와 교내 벽화 재정비 등 새로운 시도로 활동의 폭도 넓혔습니다. 또한 동아리 회원 간 친목을 다지고 격려하기 위해 볼링대회와 시험기간 컵과일 나눔 같은 이벤트도 여럿 진행했어요. 이를 기반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Q 다양한 대상과 영역에서 봉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린 활동들이 인상적입니다. 지난해 활동 중 만족스러운 성과를 낸 사업은 무엇인가요?

교내 벽화 재정비 사업을 꼽고 싶어요. 2024년부터 정말 진행하고 싶었던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벽화 키트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학교도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관내 청년 디자이너와 함께 벽화 디자인 시안을 구상하며 완성도를 높였고, 통영시 청년센터에서 'UP-Finder' 사업과 연계해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러 기관과 협력해 진행한 만큼 책임감도 컸죠.

처음에는 우리 힘만으로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습니다. 재능기부로 받은 도안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부담도 있었지만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작업한 덕분에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벽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학교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도 커졌고, 벽화가 오래도록 유지돼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Q 한 해 동안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을까요?

지난봄, 통영의 명소 미륵산을 오르며 진행했던 줍깅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힘든 코스였지만 쓰레기를 주우며 끝까지 함께해 준 회원들의 모습이 무척 고맙습니다. 정상에 도착해 시원한 공기 속에서 모두가 뿌듯해하던 순간은 큰 보람이구요. 경상남도 산청군으로 수해 복구 봉사를 다녀온 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토사로 뒤덮인 집과 창고를 주민들과 함께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고, 내 집처럼 땀 흘려 돕는 회원들의 모습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새마을운동이 봉사를 넘어 사람과 지역을 잇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느꼈죠.

지난 12월 29일에는 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평가대회 대상 상금으로 통영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 40명을 초대해 함께 마라탕을 먹었어요.



'영양 듬뿍, 사랑 가득' 계란빵 나눔



통영국제음악재단(TIMF) 프린지 음악제 자원봉사



어르신 인지향상 프로그램

아이들이 신나게 마라탕 재료를 고르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동아리 회원 모두가 행복해 했죠.

Q 어떤 마음으로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고, 새마을정신을 이어가는 중인가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과거의 역사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대학새마을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지금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어가는 '살아 있는 운동'임을 느꼈죠. 현재는 동아리를 비롯한 청년새마을연대가 기존 새마을지도자들과 협력해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새마을동아리 활동을 통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러한 가치와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 앞으로 새마을운동이 젊은 세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면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이 또 다른 참여로 이어질 때 그 힘은 더욱 커지니까요.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와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대학새마을동아리 구성원들이 청년새마을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의미 역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더 널리 확산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Q 대학에서 뜻깊은 활동을 하고 싶은 예비 회원들에게 새마을운동과 Y-SMU의 장점과 매력을 마음껏 소개해 주세요.

Y-SMU의 가장 큰 매력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활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담 없이 함께하다 보면 회원들끼리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며 봉사의 의미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봉사 활동을 넘어 나눔과 협력, 세대 간 소통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동아리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의미 있는 경험을 쌓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 바로 Y-SMU입니다.

Q 2026년 Y-SMU의 활동 계획과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2026년에는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매년 이어오는 생명교실과 연탄 나눔, 줍깅, 김장 나눔을 비롯해 청년연대와의 협력사업 등 더욱 다채로운 활동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Y-SMU는 교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밝고 건강한 동아리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거예요.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2026년에도 Y-SMU의 활동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마지막까지 기반을 잘 다지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준 모든 회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Y-SMU가 사람과 지역을 잇는 따뜻한 공동체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손글씨로 읽는 새마을정신

새마을 손글씨 공모전 수상작

지난해, 새마을운동 55주년을 기념해 새마을노래 가사를 손글씨로 써보는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세대를 넘어 오랜 시간 불려온 새마을노래의 가사를 손글씨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 가사에 담긴 새마을정신을 다시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한줄 한줄 각자의 필체로 써 내려가며 가사 속 의미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풀어냈다. 그 가운데 선정된 최우수, 우수 수상작들을 소개한다.

<새마을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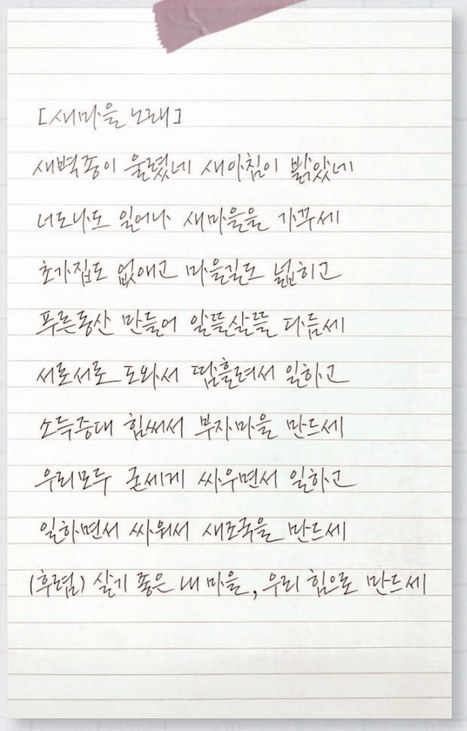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 가꾸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서로 서로 도와서 땀흘려서 일하고
소득증대 힘써서 부자마을 만드세
우리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조국을 만드세
(후렴)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최우수

서재권 님

[심사평]

개성이 뚜렷하고 새마을운동 이념과 조화되는 글씨체. 레트로한 느낌이 돋보이는 글씨체다. 새마을정신의 힘차고 역동적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했고, 기존 폰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적 형태로 예술성도 높다.



우수

박정식 님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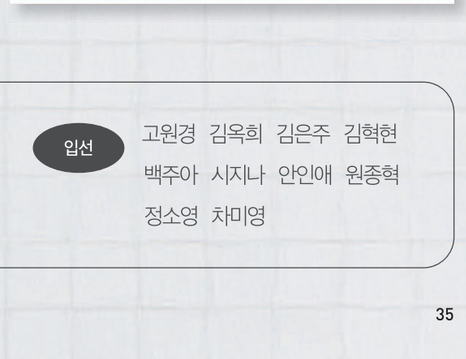
완성도 높은 미려한 글씨체로, 가녀리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이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서체인 '봄날체' 못지않다. 가독성만 조금 더 확보한다면 화면 자막용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폰트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우수

이선애 님

[심사평]

독창성과 예술성이 우수한 폰트다. 특히 'ㅣ'(이) 같은 모음에서 손글씨 특유의 형태 변형이 거의 없어 일관성이 뛰어나다. 전자기기에 적합한 폰트로 개발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전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장려상 김상정 박민규 박해옥 오택열 장유빈

입선 고원경 김옥희 김은주 김혁현 백주아 시지나 안인애 원종혁 정소영 차미영

바다와 삶이 만나는 자리에서 잠시 멈춤 **강원 동해시**

계절이 깊어질수록 여행은 속도를 잃는다. 더 멀리 가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 머무는 쪽을 택하게 된다. 겨울의 동해는 그런 선택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공간이다. 화려함보다 고요가 먼저 다가오고, 풍경은 말을 아끼며 제 자리를 지킨다.

글 편집실



추암해수욕장 촛대바위

가장 먼저 하루를 맞이하는 '추암해수욕장'

추암해수욕장은 동해에서 하루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다. 새벽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 수평선 위로 빛이 번지기 시작하면 하늘과 바다가 이루는 새로운 모습이 보인다. 이 순간을 보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다.

이른 아침의 추암해변은 특히 고요하다. 관광객의 발길이 본격적으로 닿기 전 모래사장을 걷다 보면 파도 소리 외에는 거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 고요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자신의 호흡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빠르게 흘러가던 생각은 잦아들고, 마음은 파도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가라앉는다. 추암해수욕장은 그래서 '보는 곳'이기보다는 '머무는 곳'에 가깝다.

추암해수욕장 하면 '촛대바위' 역시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오랜 시간 파도에 깎이고 바람에 닳으며 만들어진 촛대바위의 형상은 태고에 땅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반복된 침식의 결과물이다. 바위 위로 부딪히는 파도는 거칠지만 규칙적이고, 그 반복 속에서 바위는 조금씩 모양을 바꿔왔다.

계절에 따라 이곳의 풍경은 확연히 달라진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에 활기가 더해지지만, 겨울의 바다는 차가운 공기와 은은한 햇살 속에서 더 짙은 빛깔을 띠고, 바위의 윤곽이 또렷해진다. 사람의 움직임이 줄어든 자리에서 자연은 스스로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낸다. 그 풍경 앞에 서면, 굳이 말을 보태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추암해수욕장은 동해시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이자 여행자의 마음에 첫 쉼표를 찍어주는 공간이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길지 않아도 좋다. 다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혹은 파도의 리듬이 몸에 스며들 때까지 잠시 멈춰 서 있기만 해도 이 바다는 충분히 제 몫의 이야기를 건넨다.

artist
임영웅 _

music
모래 알갱이

유튜브에서
'임영웅 - 모래 알갱이' 듣기

추암해수욕장 형제 바위



임영웅의 노래 '모래 알갱이'는 이른 아침의 추암해변 산책에 잘 어울린다. 작은 감정과 순간을 차분히 쌓아가는 이 노래는, 서두르지 않고 하루를 여는 추암해변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강한 기승전결 대신 잔잔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선율은 파도의 리듬과 함께 걷는 발걸음을 한층 느리게 만든다.

하루의 끝과 시작이 교차하는
'묵호항'

묵호항은 동해시의 대표적인 항구로 현재까지도 어업과 생활 기능이 함께 유지되고 있는 곳이다. 항구를 중심으로 부두와 선착장, 어선이 정박하는 공간이 이어지고, 그 뒤로는 상가와 주거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다. 항구와 도시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곳은 동해시민들의 생활 공간에 가까운 인상을 준다. 그래서인지 묵호항은 언제 찾아도 '동해시 다움이 느껴지는 공간'이다. 이른 새벽부터 배가 드나들고, 낮에는 사람과 물건이 오가며, 해질녘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하다.

이른 아침의 묵호항은 하루 중 조용하면서도 꽤 분주한 모습이다. 새벽 조업을 마친 어선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정해진 역할에 따라 바쁘게 움직인다.

낮이 되면 항구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다. 어시장과 주변 상권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어나면서 항구는 어부들의 일터에서 수산물을 사고파는 시장의 모습으로 바뀐다.

그대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홀연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홀연히 흘러가리

그래요 그대여 내 맘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 임영웅, 〈모래 알갱이〉 중에서



묵호항 인근 해랑전망대

해가 질 무렵에는 바쁘게 움직이던 작업이 마무리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배도 보이기 시작한다. 묵호항은 이렇게 늘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끝내고, 같은 방식으로 다음 날을 맞는다.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이곳을 찾는 이들이 적어 묵호항의 모습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성수기에 가득 공간을 채우던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항만 시설과 작업장, 인접한 바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와 '볼거리'보다는 '묵호항'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있다.

묵호항은 동해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다. 이곳을 지나다 보면 동해라는 도시가 바다를 관광 자원 이전에 생활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과장 없이 기능으로 설명되는 항구, 그것이 묵호항의 성격이다.

삶의 역사가 만들어 낸
'논골담길'

묵호항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이내 동해의 바다와 산비탈을 따라 이어지는 논골담길이 눈을 사로잡는다. 화려한 모습의 관광지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삶이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공간이다. 그래서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풍경을 감상하는 일이 아니라, 한 도시가 살아온 시간을 천천히 알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골목은 좁게 굽이진다. 집과 집 사이는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깝지만 때로는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담벼락 곳곳에는 벽화와 안내 문구가 더해져 있지만 이 길의 주인공은 분명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빨래가 널린 창가, 오래된 우편함, 닳아 있는 계단 손잡이 같은 사소한 풍경이 이곳이 '살아 있는 동네'임을 증명한다.

논골담길을 따라 천천히 오르다 보면 처음에는 골목과 집이 보이던 풍경이 어느 순간 바다와 항구로 확장된다.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동해의 모습은 생활의 현장 그대로의 풍경이다. 항구에 정박한 배, 그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 바다와 맞닿아 있는 도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논골담길의 길의 진짜 매력은 천천히 걸어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빠르게 오르면 금세 끝나지만, 천천히 걸을수록 더 많은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논골담길은 풍경만 놓고 보면 조용한 산동네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시작은 탄광과 항구가 함께 움직이던 시절 일터와 가까운 곳에 거주해야 했던 사람들의 터전이었다. 지금은 탄광 산업이 쇠퇴하고 항구의 역할이 변하면서 이 동네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다. 벽화와 안내 표지, 전망 공간이 더해졌지만 골목의 기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좁고, 여전히 위아래로 이어진다. 그 덕분에 논골담길에는 과거의 생활 방식이 비교적 고스란히 남아 있다.

동해시는 특별한 장면을 앞세우기보다 이미 자리 잡은 풍경을 그대로 두는 도시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고, 항구는 제 역할을 이어가며, 골목은 오래된 형태를 유지한 채 남아 있다.



논골담길 벽화

우리는 왜 **칭찬을 망설일까**

관계를 살리는 가장 쉬운 소통 방법

우리는 일상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군가의 노력을 마주한다. 회의를 준비한 동료, 묵묵히 일을 마무리한 후배, 팀 분위기를 살핀 한마디까지. 마음속으로는 '고맙다',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말로 꺼내려면 머뭇거리게 된다. 괜히 오버하는 것 같을까 봐, 칭찬이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멈춘다. 하지만 칭찬은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가장 쉬운 소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칭찬을 건넬 수 있을까?

글 편집실



[과연 나는 얼마나 칭찬을 잘하고 있을까?]

재미로 알아보는 자가진단

+ 체크리스트 +

- ☐ 동료의 노력을 눈여겨보는 편이다.
- ☐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함께 언급하며 칭찬한다.
- ☐ 직급이나 연차와 상관없이 칭찬할 수 있다.
- ☐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칭찬이 어색하지 않다.
- ☐ 메신저나 문자로도 칭찬을 전한 적이 있다.
- ☐ 칭찬 뒤에 지적이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 ☐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만의 장점을 말한다.
- ☐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 ☐ 칭찬을 관리가 아닌 존중의 표현으로 생각한다.
- ☐ 칭찬을 받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용도일 뿐
전문적인 검사나 연구 결과는 아닙니다.

칭찬을 해야 하는 이유

칭찬은 그저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노력을 알아보았다는 신호다. '나는 보고 있었다', '당신의 노력이 의미 있었다'는 메시지는 상대에게 작은 안도감과 확신을 남긴다. 특히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칭찬은 '잘해냈다'는 평가를 넘어 '잘해가고 있다'는 방향을 전해준다. 또한 칭찬은 관계의 온도를 조절한다.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아도 일은 돌아가지만 칭찬이 있는 관계에서는 말이 더 쉬워지고, 의견을 내는 부담도 줄어든다. 그래서 칭찬은 친절의 표현이자 함께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에 가깝다.

윗사람을 칭찬해야 할 때도 있다

일을 하다 보면 문득 막막하던 일을 대신 앞에서 정리해 주거나 대신 앞에서 책임을 져준 윗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줘야 할 때가 있다. 물론 칭찬이라기보다는 감사 인사에 가깝지만 그마저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나 관계를 계산해서가 아니지만, 괜히 아부처럼 들리지는 않을지 혹은 주제넘는 행동이 되지 않을지 하는 고민에 망설이게 된다.
윗사람에게 하는 칭찬은 많을 필요도 멋있을 필요도 없다. 짧아도 되고 한 문장이어도 충분하다. '덕분에 방향이 잡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하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관계를 바꾸기보다, 관계 사이에 조용한 신뢰를 하나 더 얹는 말에 가깝다.

조직에서 칭찬의 효과

조직의 리더든 구성원이든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을 경험한다면 자신이 조직 안에서 존중받는다는 신호를 읽는다. 칭찬은 조직 자체를 바꾸는 가장 부드러운 장치이기도 하다. 지적은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칭찬은 바람직한 행동이 반복되도록 만든다.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구체적인 칭찬은 조직이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와 기준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칭찬의 중요한 효과는 심리적 안전감[1]이다. 칭찬이 오가는 조직에서는 실수나 의견 차이를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말해도 괜찮고, 시도해도 괜찮다는 분위기는 결국 더 많은 소통과 협력으로 이어진다. 결국 조직에서의 칭찬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장식이 아니라 사람을 머무르게 하고, 관계를 이어가며,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본 언어다.

칭찬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말이 아니다. 마음속에 남겨두었던 한마디를 제때 건네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새마을 가족들의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한결 부드럽게 바꿀 것이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과 칭찬의 한마디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꺼내보자.

1) 심리적 안전감은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이나 실수를 자유롭게 표현해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된 조직 분위기를 말한다.

+ 함께 확인해 보아요 +

0~3개
아직은 칭찬 초보
아직 솔직한 마음을 담아 칭찬을 전하기가 어렵겠지만,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멋지게 표현해야 한다는 부담감부터 내려놓는 것이 좋다.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편했어요'처럼 짧은 말부터 시작해 보자.

4~7개
칭찬 좀 하시네요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내려고 노력하지만, 가끔은 타이밍을 놓치거나 마음속에만 남겨두기도 한다. 조금 더 자신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과 이유를 함께 말해 보자. 칭찬이 훨씬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이다.

8~10개
사랑과 용기를 주는 칭찬 천사
말 한마디로 상대에게 신뢰와 용기를 전하고, 조직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다. 하지만 칭찬이 지나치면 습관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상대의 눈높이와 상황에 맞춘 진심 어린 표현을 고민해 보자.

새해 목표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실패를 줄이는 요즘 사람들의 목표 설정 방식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유는 목표가 지나치게 거창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가 새해 목표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온 새마을운동의 정신과도 닮았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새마을 가족들은 이미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해 오고 있다. 새해에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자.

글 편집실



요즘 사람들이 목표를 지키는 법 '조용한 목표'

최근 몇 년 사이 새해 목표 트렌드로 떠오른 개념이 바로 '조용한 목표'다. 이는 목표를 크게 선언하거나 주변에 알리기보다, 스스로만 알고 차분히 실천해 나가는 방식이다. 예전에는 새해 목표를 크게 알리고 다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면, 요즘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목표가 오히려 오래간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조용한 목표의 장점은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압박도 줄어든다. 결과를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목표는 경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약속'이 된다.

목표는 크게 보다 작게

목표를 세울 때 흔히 범하는 실수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는 것이다. '매일 한 시간 운동하기', '1년에 책 100권 읽기'처럼 의욕은 넘치지만, 현실과 거리가 있는 목표는 오히려 중도 포기의 원인이 된다.

요즘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식은 목표를 최대한 잘게 쪼개는 것이다. 운동이라면 '일주일에 두 번 20분 걷기', 독서라면 '잠들기 전 10쪽 읽기'처럼 당장 실천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작아 보이는 목표라도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변화를 불러온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무리하지 않는 목표 설정이 더욱 중요하다. 몸과 생활 리듬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목표'가 장기적으로 더 큰 성취로 이어진다.

결과보다 과정 기록이 목표를 지킨다

목표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과정을 기록한다. 매일 몇 분 걸었는지,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날은 왜 그랬는지를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도 목표 유지율은 크게 높아진다.

요즘은 종이 수첩이나 달력에 체크하는 방식부터 휴대전화 메모, 간단한 앱까지 기록 방법도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흔적을 남긴다'는 점이다. 기록은 자신을 점검하게 하고, 중간에 흐트러졌을 때 다시 방향을 잡게 해 준다.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지만 과정은 매일 확인할 수 있다. 오늘 한 걸음 내디뎠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동기 부여가 된다.

남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목표의 힘

목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남과 비교하거나 성과를 증명하려 할수록 목표는 부담이 된다. 반면, 남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목표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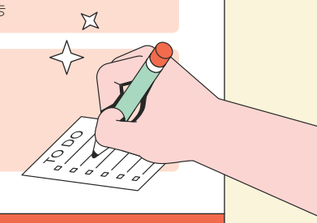
조용한 목표는 속도가 느릴 수 있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오늘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내일이 쌓이면서 목표는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된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다면 거창한 계획보다 '작고 조용한 약속 하나'를 정해보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목표, 기록으로 남기며 자신을 응원하는 목표라면 충분하다. 새해의 변화는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시작된다.

실천해 보세요!

큰 변화를 만드는 **일상 속 작은 실천** 다섯 가지

실천하기	예시	포인트
하루에 한 번 기록 남기기	• 10분 산책 • 건강식 챙겨 먹음	• 기록은 성취를 눈으로 확인하게 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잘한 일을 '보이게' 만드는 습관
시간을 정하지 말고, 행동만 정하기(구체적으로)	• 하루에 30분 달리기 ✕ • 매일 저녁 7시에 운동 ◎	• 시간에 묶이지 않으면 실패 확률이 줄어듦 • 하루 중 가능한 순간에 실천 가능
이미 하는 일에 하나만 덧붙이기	• 양치 후 스트레칭 1분 • TV 켜기 전 스쿼트 30개 • 잠들기 전 책 2쪽	• 증명의 부담 ⬇ •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기 쉬움
목표를 결과가 아닌 행동으로 표현하기	• 체중 감량하기 ✕ • 저녁에 물 한 컵 마시기 ◎	• 성취감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 • 작은 성공을 인정할수록 지속 가능
일주일에 한 번 되돌아보기	질문은 딱 3가지만 • 이번 주에 꾸준히 한 것은? • 조금 힘들었던 점은? • 다음 주도 계속할 것은?	• 반성보다 점검에 초점 • 목표가 자연스럽게 조정됨



중앙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새마을문고중앙회(회장 김종철)는 지난해 12월 10일 중앙회 대강당에서 대통령기 제45회 국민독서경진대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독서문화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대회는 각급 조직과 독서문화공간, 재능기부동아리의 우수 사례를 발굴·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친수자와 가족, 문고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재능기부공연, 작품 낭독을 함께 하며 독서문화 확산의 의미를 나눴다.



우수마을공동체경진대회

지난해 12월 11일 중앙회 대강당에서 '2025 우수마을 공동체 경진대회'가 열렸다. 본 대회는 2025년 전국에서 추진된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지도자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동 추진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13개 공동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 중 최우수상은 경남 밀양시 '숲이 있는 숲마 어울림 공동체'가 수상해 시상금 500만 원과 상장을 받았다.



대학새마을동아리 지도교수 워크숍 및 연말평가대회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이틀 동안 '2025 대학새마을동아리 지도교수 워크숍 및 연말 평가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78개 대학 새마을동아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우수동아리 시상식에서는 교내 플로깅 활동을 비롯해 탄소중립 생명교실, 지역축제 봉사, 연탄 나눔 등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온 경상국립대학교 통영캠퍼스 새마을동아리가 대상을 받았다.



현충원 참배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시무식에 이은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1월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에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양윤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장, 김정임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장, 김종철 새마을문고중앙회장, 최형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광림 중앙회장은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

빛나는 새마을여인대회

서울시부녀회(회장 조동희)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빛나는 새마을여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에서 헌신해 온 새마을부녀회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시부녀회 회장단과 각 구 부녀회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체험수기 발표와 화합 한마당, 시상식을 통해 연대와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

2026 신년인사회

부산시새마을회(회장 백옥자)는 1월 6일 부산시새마을회관 강당에서 '2026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새마을신문 창간 15주년을 기념하고 2025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부산시새마을운동의 재도약을 위한 포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부산새마을 가족 120여 명이 참석해 희망찬 출발을 함께했다.



대구

2025 대구광역시새마을지도자대회

대구시새마을회(회장 최영수)는 지난해 12월 2일 경북대학교에서 '2025 대구광역시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특강 2025 대구 새마을운동 보람의 현장 영상 시청, 유공 지도자에 대한 정부포상 및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영수 대구시새마을회장은 '지역사회가 맞닥뜨린 다양한 어려움을 새마을 정신으로 극복하는 데 대구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천

2025 인천광역시새마을지도자대회

인천시새마을회(회장 이황일)는 지난해 12월 2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힘쓴 새마을지도자와 회원을 격려하고 성과와 비전을 공유한 '2025 인천광역시새마을지도자대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광림 중앙회장을 비롯해 군·구 회장과 회원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개회식과 함께 유공회원 표창을 진행했다.



광주

2025 광주광역시새마을지도자대회

광주시새마을회(회장 류재선)는 지난해 12월 19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새마을지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광주광역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영상 상영, 유공자 시상, 대회사, 축사, 비전다짐 퍼포먼스, 새마을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활동을 돌이켜보는 '2025 보람의 현장' 영상을 시청하며 새마을지도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

2025 울산 국민운동단체 소통의 날

울산시새마을회(회장 정대식)는 지난해 11월 22일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울산 지역 3대 국민운동단체(울산광역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울산광역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울산광역시지부)와 함께 '2025 울산 국민운동단체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3대 국민운동단체는 이날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울산이 AI 산업수도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이뤄내는 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전

초록산타 희망과 사랑나눔

대전시새마을회(회장 박영복)는 지난해 12월 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초록산타 희망과 사랑나눔' 행사를 열고 소외계층 아동과 100가구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장우 시장과 조원휘 시의장 등 주요 인사와 시·구새마을회 회장단 및 새마을지도자 등 600여 명은 초록산타로 변신해 선물꾸러미를 만들어 나눔을 실천했다.



세종

2025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지도자대회

세종시새마을회(회장 김영제)는 지난해 12월 3일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2025 세종특별시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새마을운동 일선 현장에서 지역사회 및 대한민국의 발전에 헌신한 지도자들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이뤄졌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참석해 기록적인 폭염과 극한의 호우 속에서도 세종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

2025 함께해요!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이호경)는 지난해 12월 4일, 동두천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2025 함께해요!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에는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도내 시·군새마을회장단, 새마을지도자 등 총 1,100여 명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과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강원

2025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지도자대회 · 새마을돌봄 희망노(老)을 평가보고회

강원도새마을회(회장 홍순선)는 지난해 11월 26일 원주 백운아트홀에서 '2025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하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강원도부녀회(회장 전미용)는 지난해 12월 4일 '새마을돌봄 희망노(老)을 평가보고회'를 한국여성수련원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시군의 돌봄활동을 평가하여 시상했다.



충북

지역아동센터, 초록산타 출동!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남재호)는 지난해 12월 23일 '행복1%나눔' 후원사업 일환으로 청주시 서원구 소나무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책상과 의자, 자외선 살균소독기 등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아동들을 위한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고, 청주시새마을회 문고 회원들과 함께 팝콘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충남

라오스 쌈판나마을 국제협력사업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성낙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회기반시설 개선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라오스 농림환경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본 사업은 마을 주민을 위한 생활기반 확충과 함께 새마을동아리 창단, 의료봉사 등 인적 교류를 병행한 종합 협력모델로 평가받았다. 성낙구 회장은 "앞으로 충남형 새마을 국제협력 모델을 표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2025 '얼쑤~ 민생상생 공동체 결의대회' · 특별한 환경 골든벨 대회

전라북도새마을회(회장 이상수)는 지난해 11월 6일 장수종합실내체육관에서 도지사, 장수군수, 도새마을회장 및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얼쑤~ 민생상생 공동체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한편 문고 전라북도지부(회장 나순희)는 지난해 11월 14일 정읍 배영중학교에서 '책을 봄, 지구를 봄, 세상을 봄! 2025 특별한 환경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경북

2025 사무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경상북도새마을회(회장 서중호)는 지난해 12월 29일 경상북도새마을회관에서 '2025 사무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시군구종합평가 점검, 조직역량 강화 교육, 마을공동체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이번 워크숍은 사무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새마을운동 추진에 필요한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

2025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지도자대회

제주도새마을회(회장 김창기)는 지난해 12월 11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025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오영훈 도지사와 이상봉 도의장, 새마을지도자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새마을운동을 결산하고, 유공자 포상을 통한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자부심 고취를 위해 마련했다.



이북5

이북5도새마을지도자대회 · 청년새마을연합회 발대식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지난해 12월 13일 이북5도청 평화강당에서 '2025 이북5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조성원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 해 동안 묵묵히 봉사활동에 나선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청년 세대와 함께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 활동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이북5도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홍우진) 발대식이 진행됐다.



전남

2025 전라남도새마을지도자대회 · 제45회 국민독서경진 전라남도 예선대회 시상식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양재원)는 지난해 11월 27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시·군새마을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라남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열어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문고 전라남도지부(회장 백영자)는 지난해 11월 21일 신안비치호텔에서 '제45회 국민독서경진 전라남도 예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남

2025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시상식 및 새마을 핵심리더 워크숍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윤원섭)는 지난해 12월 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 최학범 도의회 의장 등 내빈과 새마을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시상식 및 새마을 핵심리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우수 조직과 지도자에 대한 시상과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새마을 핵심리더 워크숍'을 진행했다.



광고주를 모십니다

매거진 '새벽종'과 함께하는 순간,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로 문의하세요.
031-620-2372, 2381



서울



#사랑의 밑반찬 나눔 #이웃과 함께하는 온기 #새마을공동체

서울 강남구새마을회

온정의 손길, 사랑의 밑반찬 나눔

무슨 일을 했나요?

- 정성 가득 밑반찬으로 이웃에게 온기 전하기
- 연말연시 나눔 실천으로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

어떻게 했나요?

- 쇠고기 장조림, 콩자반 등 7종 밑반찬 직접 조리
- 관내 어르신·저소득층 등 250가정에 떡국떡 2㎏과 반찬 꾸러미 전달

Point

- 물가 상승 속에서도 지원 범위 확대
- 작지만 꽉 채운 온기로 지역사회 희망 전파



#국제나눔 실천 #지구촌새마을운동 #상생의 새마을

서울 양천구새마을회

국제협력사업 전개

무슨 일을 했나요?

- 개발도상국 교육환경 개선
- 나눔과 상생의 새마을정신 세계로 확산

어떻게 했나요?

- 라오스 남홈초등학교 화장실 건립으로 교육시설 개선
-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학용품 전달

Point

- 국제 나눔 실천으로 양국 간 우호 증진
- 현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부산



#공동체문화 조성 #나눔실천 #따뜻한 겨울나기

부산 해운대구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나눔

무슨 일을 했나요?

- 김장 나눔으로 소외 이웃 지원 및 지역사회 유대 강화
- 서로 돌보고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

어떻게 했나요?

- 한자리에 모여 유기농 재료로 김장 김치 담그기

Point

- 직접 담근 김치를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나눔 가치 확산



#안전한 우리동네 #안심귀가 #우리동네 지킴이

부산 수영구새마을회

야간 방범 활동

무슨 일을 했나요?

- 순찰 활동을 통한 범죄 예방과 주민 심리적 안정 도모
- 안전한 마을 공동체 조성

어떻게 했나요?

- 관할 지구대와 합동 방범으로 취약 지역 집중 순찰

Point

- 귀가 주민의 안전 확보
- 범죄 사각지대 없는 안심 마을 구현

대구



#나눔실천 #공동체 화합 #공공강화

대구 수성구새마을회

해맞이 떡국 행사

무슨 일을 했나요?

- 공동체 화합과 나눔 문화 실천 목표로 떡국 행사 진행

어떻게 했나요?

- 새마을지도자의 자발적 참여로 떡국 조리·배식 및 현장 운영

Point

- 새해 첫날 나눔을 통한 공동체 연대감과 소속감 강화

인천



#사랑의 고추장 나눔 #이웃사랑 실천 #지역공동체 활성화

인천 강화군새마을회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무슨 일을 했나요?

- 소외계층을 위한 고추장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현

어떻게 했나요?

- 새마을지도자 60여 명이 참여한 고추장 담그기
-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 800가구 전달

Point

-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한 나눔 활동
- 매년 이어지는 고추장 나눔으로 지역사회 온기 전달

*시군구 새마을(지회 우수사업사례집 활동내용을 토대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광주



#김장 나눔 #사랑의 김장
#온기 나눔

광주 북구새마을회

신한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무슨 일을 했나요?

- 이웃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김장 나눔 실천

어떻게 했나요?

- 정성껏 담근 김치를 북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 신한금융그룹 직원들과 공동 추진해 나눔의 가치 공유

Point

- 온기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 연대 강화

대전



#다문화가정 #한국문화 체험
#효문화 실천

대전 중구새마을회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고추장 만들기

무슨 일을 했나요?

- 이주여성의 한국 문화 이해를 돕고 안정적인 정착과 가정생활 지원
- 효 문화 실천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어떻게 했나요?

- 부녀회와 이주여성이 함께 모여 고추장 만들기
- 동별 10세대의 어려운 이웃과 다문화가정에 전달하며 안부 나눔

Point

- 한국 전통음식 체험과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 다문화가정의 소속감과 자긍심 제고

울산



#하천을 살리다 #함께하는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지구

울산 중구새마을회

하루의 실천이 하천의 내일이 되다

무슨 일을 했나요?

- 지역 하천 환경 보전과 수질 개선을 위한 정화 활동
-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으로 탄소중립 인식 확산
- 주민 참여형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

어떻게 했나요?

- 새마을지도자 70여 명이 참여해 척과천 부유물과 생활 쓰레기를 수거·정비하고, 주변 환경도 점검

Point

-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 하천 관리
- 지역 하천을 '우리 동네 자산'으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경기



#공동체문화 조성 #칼국수 후원
#따뜻한 사랑 나누기

경기 양주시새마을회

사랑의 칼국수 후원

무슨 일을 했나요?

-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 칼국수 100kg 후원을 통한 공동체 나눔 실천

어떻게 했나요?

- 직장·공장양주시협의회가 회천노인복지관에서 '사랑의 칼국수' 후원 행사 진행

Point

- 녹색·건강·문화 새마을운동 중점 과제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 조성

경기



#농촌체험 활동 #쌀 도정 체험
#공동체문화 조성

경기 이천시지회

쌀쌀맞게 놀자, 미(米)소 짓는 하루

무슨 일을 했나요?

- 농촌체험 활동으로 쌀 도정 체험 진행
- 설봉초등학교 4학년 5반·6반 학생들이 이틀간 참여

어떻게 했나요?

- 쌀이 재배되어 밥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직접 배우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Point

- 체험 중심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와 흥미 증진

강원



#청소년 배움과 나눔 #성탄절 선물
#지역공동체 연대

강원 삼척시지회

도전 골든벨 한국사 · 물리 퀴즈 및 성탄절 나눔

무슨 일을 했나요?

-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한국사·물리 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 성탄절 맞이 지역아동센터 나눔 활동 실천

어떻게 했나요?

- 문고 회원과 청년연대가 함께 골든벨 퀴즈대회 진행
-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성탄절 선물 나눔 활동 전개

Point

- 퀴즈대회를 통해 청소년에게 배움의 즐거움과 도전 기회 제공
- 교육과 나눔을 연계해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연대 강화



강원 양구군지회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응급처치 및 소방교육

무슨 일을 했나요?

- 안전지킴이 봉사단 구성을 위해 응급처치·소방교육 실시

어떻게 했나요?

- 농아인센터 임직원과 함께 심폐소생술 및 응급 상황 대응 교육
- 소방교육 및 소화패치를 배부하여 화재 예방 활동 병행

Point

- 응급처치 기술 습득으로 안전사고 대응력 향상
-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

#안전지킴이 #응급처치 #화재 예방

충북



충북 충주시새마을회

아침밥 먹기 챌린지 '오늘도 아밥(아침밥)하자'

무슨 일을 했나요?

- 아침밥 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하루 응원
- 지역 농산물 활용을 통한 우리 쌀 소비 촉진

어떻게 했나요?

- 등교 시간 전, 부녀회원들이 직접 주먹밥 도시락 준비
- 교현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아침밥 무료 제공

Point

-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만든 주먹밥
- 관내 취약계층 거주 지역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도모

#건강한 식습관 #아침밥 먹기 챌린지 #우리쌀 소비 촉진



충북 제천시새마을회

이웃돕기 사랑의 나눔 텃밭 가꾸기

무슨 일을 했나요?

- 휴경지를 활용한 나눔 텃밭 조성·운영

어떻게 했나요?

- 매년 3~11월 고구마, 옥수수, 감자, 무, 배추 등 식재·수확
- 수확물 판매 수익금으로 연말 취약계층 및 단체 지원

Point

- 정서적 교류를 통한 이웃 간 신뢰 회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수확물 나눔으로 실천하는 밀착형 이웃돕기

#사랑의 나눔텃밭 #이웃사랑 실천 #공동체문화 조성

충남



충남 계룡시지회

청년과 아이, 함께 뛰는 건강새마을

무슨 일을 했나요?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신체활동과 건강 증진
- 청년연대와 아동 간 유대감 형성 및 협동심 강화

어떻게 했나요?

- 청년연대 회원 10명, 아동 20명이 참여
- 신도안 풋살장에서 2인 3각 달리기, 협동 릴레이, 줄다리기 등 다양한 미니 체육게임 진행

Point

- 신체활동과 놀이를 통해 아동의 체력 향상 및 팀워크 강화
- 세대 간 교류와 협동 경험으로 지역공동체 정서 확산

#청년과 아동 교류 #미니 체육대회 #건강새마을



충남 서천군새마을회

연말 이웃사랑, 따뜻한 서천

무슨 일을 했나요?

- 판교면 지역 어르신들의 겨울철 난방 지원
- 연말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 유대 강화

어떻게 했나요?

- 판교면협의회가 관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난방유 지원
-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정 나눔

Point

- 혹한기 대비 생활 밀착형 지원으로 어르신 생활 안정 도모
- 직접 방문 전달로 지역사회 돌봄과 공동체 정신 확산

#연말 이웃사랑 실천 #어르신 난방유 지원 #지역공동체 돌봄

전북



전북 무주군지회

제로 웨이스트 함께해요! 친환경세제 만들기

무슨 일을 했나요?

- 친환경 제품 활용으로 탄소중립 실천
- 가정 내 오·폐수 문제 인식 제고 및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

어떻게 했나요?

- 친환경 생활 세제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지역 하천과 가족 건강을 지키는 제로 웨이스트·자원순환 교육 진행

Point

- 기존 세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해
- 천연 세제 만들기와 환경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녹색새마을 #제로 웨이스트 #탄소중립 실천

전북



#문화새마을 #더불어 사는 사회
#공경문화 실천

전북 장수군지회

행복 나눔 '빵구워' 사업

무슨 일을 했나요?
- 행복 나눔 빵 만들기 활동

어떻게 했나요?
- 직접 만든 빵을 관내 경로당 및 복지시설에 전달
- 나눔과 공경의 가치를 실천하며 이웃과 따뜻한 정 나눔

Point
- 참여형 봉사활동으로 공동체 의식 강화
-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과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

전남



#이웃사랑 실천 #정성 나눔
#공동체문화 조성

전남 화순군새마을회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무슨 일을 했나요?
- 정성을 담은 음식으로 이웃에게 온기 전달
- 나눔을 통해 함께하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

어떻게 했나요?
- 국산 재료를 활용한 고추장 담그기 활동
- 전통 발효음식 만들기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의 장 마련

Point
- 직접 담근 고추장을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
- 함께 만들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새마을 공동체 정신 확산



#건강새마을 #생활밀착형 나눔 실천
#지역공동체 강화

전남 무안군새마을회

무안새마을청년연대 지역 나눔 행사

무슨 일을 했나요?
- 청장년층이 주도하는 김장 나눔 봉사활동
-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운영

어떻게 했나요?
- 청년연대회원과 부녀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 추진
-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김장김치 및 쌀, 위생용품으로 구성된 지원 패키지 전달

Point
- 생활 밀착형 나눔으로 사업 지속 가능성 확대
- 세대 간 공감과 연대를 넓히는 사회적 책임 실천 프로그램

경북



#공동체문화 조성 #다문화가족
#좋은이웃 만들기

경북 영양군새마을회

사랑의 김장&반찬 나누기

무슨 일을 했나요?
- 지역사회에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 나눔과 상생의 공동체 문화 확산

어떻게 했나요?
- 사랑의 김장 나누기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병행
- 취약계층 300가구에 직접 만든 김치와 수육 전달

Point
- 영양 가득한 한 끼 식사로 따뜻한 겨울나기 준비
- 이웃과 함께 온정을 나누고 행복 충전



#따뜻한 마음배달 #새마을산타
#지역아동센터

경북 문경시새마을회

새마을 산타 런

무슨 일을 했나요?
-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새마을 산타 사랑의 나눔 실천

어떻게 했나요?
-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고 캐롤에 맞춰 율동 공연 진행

Point
- 산타 할아버지로 분장해 아이들과 즐겁게 소통
- 진심을 담은 선물로 아이들에게 웃음과 희망 전달

경남



#녹색새마을운동 #녹색생활화
#산불예방 캠페인

경남 산청군새마을회

녹색생활화 실천 캠페인 전개

무슨 일을 했나요?
- 녹색생활 실천 및 산불 예방 캠페인 전개

어떻게 했나요?
- 산청시장 일원에 새마을지도자 30여 명이 모여 거리 캠페인 실시

Point
- 전통시장 개장일에 맞춰 캠페인 진행
- 녹색생활 실천과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



새벽종
독자 의견

〈새벽종〉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감은 다음 호에 소개되며, **선정되신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QR코드 스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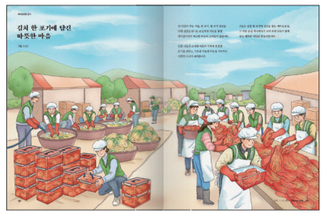
〈새벽종〉 2025년 11+12월호



<새마을 줌인>

2025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현장에 함께하며 새마을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살기 좋은 내 고장, 내 마을을 스스로 만들어왔다는 자부심이 또렷해졌어요.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이 대한민국을 성장시켜 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인옥



<새마을운동 일기>

겨울철 김장 한 포기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훈훈한 온기를 전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주는 새마을운동의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활동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박향숙



<새마을 人터뷰 2>

폐지 수집으로 기부활동을 이어가는 부부의 모습을 보고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언제나 함께 웃으며 걷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나눔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홍성태



<지구촌새마을, 함께>

〈지구촌 새마을 가족의 '함께 잘사는' 희망의 사다리〉를 읽으며, 8개국 20여 명의 아동에게 전해지는 후원금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작은 실천이 지구촌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모습에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느꼈어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마을의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정미영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